

한국 물리치료사들의 근무 현황 조사

한일병원 물리치료실 · 박성수 정형외과의원
라 기 용 · 오 영 택
성신 정형외과의원 · 대구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문 향 미 · 배 성 수
김천대학 물리치료과
전 제 균

A Survey on Working Present Status of Physical Therapiests in Korea

Rha, Ki-Yong, P.T.

Dept. of Physical Therapy, Hanil Hospital

Oh, Young-Taek, P.T.

Dept. of Physical Therapy, Park, Sung-Soo Orthopedic clinic

Moon, Hyang-Mi, P.T.

Dept. of Physical Therapy, Seong-Shin Orthopedic clinic

Bae, Sung-Soo, P.T., Ph.D.

Dept. of Physical Therapy, College of Rehabilitation Science, Taegu University

Jeon, Jae-kyun, P.T., M.P.H.

Dept. of Physical Therapy, Kimchun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real problems and to have a view of the future in Korean physical therapy of it through the survey. Moreover we make a statement for the justification acquiring the rights of practicing physical therapiests with this fundamental data.

The survey was conducted on 368 employed physical therapiests males 164, female 190 in Korea from April 1 to 30 in 1998 wit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

1. Of the 323 cases, 121(37.46%) work in local clinics, 55(17.02%) in hospitals, 103(31.89%) in general hospital and 21(9.60%) in rehabilitation centers or public welfare facilities.
2. In investigation of annual salary, the most common annual salary was more than 20million won in male(22.67%) and 12~14million won in female(35.36%)
3. The age group of 27~29 years accounted for 32.32% in male and 24~26 years accounted for 46.77% in female of the total physical therapiests are the highest.
4. In job satisfaction, 44.5% of physical therapiests who work in general hospital are generally satisfied and 25% are

unsatisfied.

5. The periods of clinical practice for which physical therapists expect to devote are 164(44.81%) consider less than 10years, and 67(18.31%) expect 20years.

6. The problems of physical therapy system in Korea are deviated administration of a central executive committee(39.94%) and excessive production of registered physical therapists.

I. 서론

1963년 정규 교육과정으로 수도의과대학 병설 의학기술 초급대학에 물리치료과가 개설된 후, 1998년 3월 말 4년제 대학 7개교, 3년제 전문대학 22개교 등 현재 전국에서 29개 대학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적인 분포를 보면(1998년 4월 현재) 서울 2, 경기 6, 부산 1, 광주 1, 대구 2, 대전 1, 전남 3, 전북 2, 강원 2, 충남 2, 충북 3, 경북 2, 경남 1, 제주 1로 서울 경기지역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리치료사의 면허인 수도 1963년 의료보조원법(보건사회부 1963)의 제정 공포 후 1974년 처음으로 국가 시험을 거쳐 1990년까지 6,282명(국립보건원 고시과 1990)이던 것이 불과 8년이 지난 1998년 4월 현재 13,301명(물협신보 115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1998)으로 집계되었다. 보건복지부 통계연보(1995)에 의하면 1994년까지 물리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는 9,111명으로 인구 10,000당 2.2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이와 비교해 보면 4년동안 물리치료사 수는 4,190명이 증가했고, 우리나라 인구를 4,600만으로 했을 때 물리치료사는 10,000명당 2.9명으로 이는 전체 대비 46%라는 경이적인 증가율이다. 정낙수(1991)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물리치료사 수급 상황에 관해 보고하기를(1991년 15개 대학 입학 정원 1130명 기준) 신규 졸업자를 18,452명 국가 시험 응시자 수는 22,313명으로 예상하였으며, 1990년 6,282명이던 물리치료사 수가 2010년이면 20,098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998년 25회 국가 시험에 응시한 수는 1414명이 응시했으며, 이중 75.74%인 1,071명이 신규 면허를 취득했고, 대학 수도 두배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12년 후인 2010년에 가면 현재에서 138%가 늘어나 그 수는 32,000명이 넘어가리라고 예상되며, 앞으로 대학 수와 입학 정원의 증가가 확실시되는 바 물리치료사 면허인 수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김철용(1997)은 현행과 같은 물리치료사의 과잉 공급을 지양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대학의 물

리치료과 증설 억제 및 정원을 현 수준에서 동결 또는 축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비례하여 물리치료사의 취업률에 관한 권혁철(1996)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물리치료사 9,924(1996년 기준)명 중 57%인 5,736명이 취업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장정훈과 신흥철(1989)의 연구에서 집계되었던 48.6%보다는 증가했으나, 이는 대한간호사협회(1996) 등록 면허인 수 62,882명 중 80%인 50,860명 과 대한방사선사협회(1997) 등록 면허인 수 13,184명 중 60%인 8,000여명 보다도 낮은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근래에는 IMF의 영향으로 도산하는 병의원이 급증하고, 구조 조정등으로 실제 취업율은 이 보다도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난 후 다른 학과에 비해 취업이 잘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이것은 매년 병의원의 개원이나 증축에 따른 수요라기 보다 어려운 근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에 생기는 결원 보충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김찬문(1997)은 지역 사회 재가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순회재활서비스에 전문 요원이 부족한데 그 중 물리치료사 역시 부족하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현재의 배출 인원과 취업율을 볼 때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장애인 시설이나 복지관등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문제가 있어 취업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86년부터 연구 조사해 온 여러 연구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물리치료사들의 복지 수준 및 근로 환경, 현 직장의 만족도 및 문제점, 병원 형태에 따른 일일 치료 환자수, 물리치료사로서 생각하는 임상기간과 만족도, 물리치료사들의 업무 능력 파악과 치료 형태, 물리치료계를 바라보는 시각등을 조사하여 스스로 현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과 관계된 내용을 묻는 설문지를 35개

문항으로 하여 1998년 4월1일~30일까지 각종 학회나 세미나, 보수교육을 개최하고 있는 지역(서울, 인천, 강릉, 대전, 당진, 대구, 경북, 울산, 부산, 경남지역)의 물리치료사들에게 배포하였다. 모두 1000장을 돌려 368장을 회수한 것을 통계처리 하였으며, 남자는 164명, 여자는 186명이었다(성별을 항목에 표기된 수). 수집된 모든 자료처리와 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성 검증은 χ^2 검증(Chi-square)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A. 조사 대상자의 특성

성별에 따른 연령별 분포표를 예들들어 설명하면 성별에 따른 물리치료사들의 연령별 분포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00$, $p<0.05$).

남자의 경우 27~29세가 가장 많은 32.32%로 나타났는데 비하여 여자는 24~26세가 46.7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여자의 경우 21~23세가 16.13%로 나타난 데 비하여 남자는 3.05%에 불과했으며, 남자의 경우 40세 이상이 7.32%로 나타났는데 여자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물리치료사의 연령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임상경력은 5년 미만이 전체의 42.19%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은 16.56%에 불과했다. 응답자 320명 중에서 10년 미만의 경력자 수는 267명으로 83.45%였다. 출신학교는 지산전문대가 35.31%, 대구보전 23.45%, 대구대학교 8.47% 순으로 일부 학교 편중이 나타났으나 16개교의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들의 졸업연도는 최근으로 다가올수록 많은 것이 두드러진다. 최종학력은 전문대졸이 전체 응답자 322명 중 249명으로 77.33%였다.

Table 1-1. 성별 및 연령 N(%)

연령 / 성별	남	여	전체
21~23세	5(3.05)	30(16.13)	35(10.00)
24~26세	30(18.29)	87(46.77)	117(33.43)
27~29세	53(32.32)	39(20.97)	92(26.29)
30~32세	30(18.29)	20(10.75)	50(14.29)
33~35세	18(10.98)	9(4.84)	27(7.71)
36~39세	16(9.76)	1(0.54)	17(4.86)
40세 이상	12(7.32)		12(3.43)
계	164(100.00)	186(100.00)	350(100.00)

$\chi^2=76.913$ $df=6$ $p=0.000$

Table 1-2. 임상 경력 N(%)

	남	여	전체
1년 미만	13(8.18)	13(8.07)	26(8.13)
1~5년 미만	50(31.45)	85(52.80)	135(42.19)
5~10년 미만	56(35.22)	50(31.06)	106(33.13)
10년 이상	40(25.16)	13(8.07)	53(16.56)
계	159(100.00)	161(100.00)	320(100.00)

$\chi^2=23.157$ $df=3$ $p=0.000$

Table 1-3. 출신학교 N(%)

	남	여	전체
고려보전	5(2.99)	1(0.53)	6(1.69)
광주전문	6(3.59)	5(2.67)	11(3.11)
김천전문	8(4.79)	12(6.42)	20(5.65)
대구대	9(5.39)	21(11.23)	30(8.47)
대구보전	40(23.95)	43(22.99)	83(23.45)
대전보전	3(1.80)	3(1.60)	6(1.69)
동남보전	1(0.60)		1(0.28)
목포전문	(1.20)		2(0.56)
신구전문	11(6.59)	1(0.53)	12(3.39)
안동전문	2(1.20)	3(1.60)	5(1.41)
안산전문	9(5.39)	8(4.28)	17(4.80)
연세대	1(0.60)		1(0.28)
영동전문	6(3.59)	19(10.16)	25(7.06)
원광전문	4(2.40)	1(0.53)	5(1.41)
인천보전	2(1.20)	3(1.60)	5(1.41)
지산전문	58(34.73)	67(35.83)	125(35.31)
계	167(100.00)	187(100.00)	354(100.00)

$\chi^2=29.430$ $df=15$ $p=0.014$

Table 1-4. 최종학력 N(%)

	남	여	전체
전문대졸	118(77.63)	131(77.06)	249(77.33)
대졸(전공)	6(3.95)	20(11.76)	26(8.07)
대졸(비전공)	24(15.79)	18(10.59)	42(13.04)
대학원졸	4(2.63)	1(0.59)	5(1.55)
계	152(100.00)	170(100.00)	322(100.00)

$\chi^2=9.899$ $df=3$ $p=0.019$

B. 물리치료사들의 근무 형태

응답자 323명 중 37.46%인 121명이 개인 의원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준종합병원에 17.02% 55명, 종합병원에는 31.

89%인 103명, 재활원과 복지관에 9.60%인 31명이었다

Table 2. 물리치료사들의 근무 형태 N(%)

	남	여	전체
개인의원	62(38.04)	59(36.88)	121(37.46)
한의원	3(1.84)		3(0.93)
준종합 병원	25(15.34)	30(18.75)	55(17.03)
종합병원	60(36.81)	43(26.87)	103(31.89)
보건소	6(3.68)	2(1.25)	8(2.48)
재활원	5(3.07)	16(10.00)	21(6.50)
복지관	2(1.23)	8(5.00)	10(3.10)
기타		2(1.25)	2(0.62)
계	163(100.00)	160(100.00)	323(100.00)

$\chi^2=19.670$ df=7 p=0.006

C. 복지 수준 및 근로 환경

응답자 353명의 연봉을 조사한 결과 남자는 2000만원 이상이 22.67%로 가장 많았으며, 여자는 35.36%로 1200~1400만원대가 가장 많았다. 여자의 경우 2000만원 이상은 3.87%인 7명에 불과했으며, 남녀의 연봉 1200이하가 전체 86명으로 24.36%로 조사되었다. 실업 대책의 하나인 고용보험의 경우 13.97%인 51명이 가입되지 않았으며, 24.93%인 91명은 연차휴가나 수당이 없었다. 미약하지만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사람도 26명이 조사되었다. 반면에 모두 가입된 경우는 17.81%로 64명에 지나지 않았다. 근로 환경의 척도가 되는 물리치료실 위치는 32.72%가 2층에 위치하여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반면 여전히 지하실에 위치한 경우도 28.31%로 개인의원일 경우 두드러졌으며, 종합병원 역시 지하에 있는 경우가 있었다.

Table 3. 연봉

	남	여	전체
1000이하	1(0.58)	3(1.66)	4(1.13)
1000~1200	26(15.12)	56(30.94)	82(23.23)
1200~1400	29(16.86)	64(35.36)	93(26.35)
1400~1600	31(18.02)	27(14.92)	58(16.43)
1600~1800	23(13.37)	16(8.84)	39(11.05)
1800~2000	23(13.37)	8(4.42)	31(8.78)
2000 이상	39(22.67)	7(3.87)	46(13.03)
계	172(100.00)	181(100.00)	353(100.00)

$\chi^2=56.006$ df=6 p=0.000

Table 4. 현직장의 복지수준 N(%)

	남	여	전체
의료보험	10(6.25)	16(7.80)	26(7.12)
국민연금	17(10.63)	17(8.29)	34(9.32)
고용보험	28(17.50)	23(11.22)	51(13.97)
연차휴가, 수당	33(20.62)	58(28.29)	91(24.93)
월차휴가, 수당	42(26.25)	56(27.32)	98(26.85)
모두 가입	30(18.75)	35(17.07)	65(17.81)
계	160(100.00)	205(100.00)	365(100.00)

$\chi^2=5.666$ df=5 p=0.340

Table 5. 물리치료실 위치 N(%)

	남	여	전체
지하	30(23.26)	47(32.87)	77(28.31)
1층	18(13.95)	16(11.19)	34(12.50)
2층	51(39.53)	38(26.57)	89(32.72)
3층	9(6.98)	24(16.78)	33(12.13)
4층	2(1.55)	2(1.40)	4(1.47)
5층	11(8.53)	9(6.29)	20(7.35)
6층 이상	2(1.55)		2(0.74)
기타	6(4.65)	7(4.90)	13(4.78)
계	129(100.00)	143(100.00)	272(100.00)

D. 현 직장의 만족도 및 문제점

물리치료사들의 현 병원 근무 년수는 응답자 361명중 57.34%가 5년 미만이었으며, 그 다음이 22.71%로 1년 미만 순이었다. 10년 이상은 6.37%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응답자 320명의 임상 경력과 비교해보았을 때, 역시 1년 이상 5년 미만이 42.19%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은 16.56%였다. 현 직장 만족도 확인에서 매우 만족한 것과 매우 불만이다가 4.23%, 4.51%로 각각 유사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35.5%는 그런대로 만족하고 있었다.

Table 6. 현 병원 근무 년수 N(%)

	남	여	전체
1년 미만	36(20.45)	46(24.86)	82(22.71)
1~5년 미만	92(52.27)	115(62.16)	207(57.34)
5~10년 미만	29(16.48)	20(10.81)	49(13.57)
10년 이상	19(10.80)	4(2.16)	23(6.37)
계	176(100.00)	185(100.00)	361(100.00)

$\chi^2=14.996$ df=3 p=0.002

Table 7. 혐직장 만족도 N(%)

	남	여	전체
매우만족	7(4.12)	8(4.32)	15(4.23)
대체로 만족	60(35.29)	51(27.57)	111(31.27)
보통	72(42.35)	77(41.62)	149(41.97)
불만	26(15.29)	38(20.54)	64(18.03)
매우 불만	5(2.94)	11(5.95)	16(4.51)
계	170(100.00)	185(100.00)	355(100.00)

$\chi^2=4.839$ $df=4$ $p=0.304$

E. 병원 형태에 따른 일일 치료 환자수

응답자 355명 중 개인의원에 근무하는 122명 중 일일 환자가 30명 이하인 경우는 31.15%인 38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 68.85%는 일일 30명 이상을 진료하고

있었다. 전체 20.85%로 준종합병원에 근무하는 74명 중 일일 30명 이하로 진료하는 경우는 28.38%였으며, 나머지 71.62%는 역시 30명 이상을 진료하고 있었다. 일일 30명이하로 진료하는 병원 형태는 중추신경계 질병을 치료하는 종합병원이나 재활원 계통에 많이 분포하였다. 전체적으로는 48.45%의 물리치료가 일일 30이하로 진료를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51.55%는 그 이상을 치료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F. 물리치료사의 임상기간과 만족도

물리치료사의 임상 기간을 묻는 질문에 366명이 응답하여 최고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응답자의 44.81%인 164명이 물리치료사의 임상 기간을 10년 이하로 보았으

Table 8. 병의원 형태에 따른 물리치료실 일일 환자수

	30명이하	30~40명	40~50명	50~60명	60명 이상	계
개인의원	38	48	21	12	3	122
	31.15	39.34	17.21	9.84	2.46	34.37
	22.09	44.86	44.68	57.14	37.50	
한의원	3	1		1		5
	60.00	20.00		20.00	1.41	
	1.74	0.93		4.76		
준종합병원	21	27	21	2	3	74
	28.38	36.49	28.38	2.70	4.05	20.85
	12.21	25.23	44.68	9.52	37.50	
종합병원	69	31	5	6	1	112
	61.61	27.68	4.46	5.36	0.89	31.55
	40.12	28.97	10.64	28.57	12.50	
보건소	7					7
	100.00					1.97
	4.07					
재활원	21					21
	100.00					5.92
	12.21					
복지관	10					10
	100.00					2.82
	5.81					
기타	3				1	4
	75.00				25.00	1.13
	1.74				12.50	
계	172	107	47	21	8	355
	48.45	30.14	13.24	5.92	2.25	100.00

$\chi^2=104.571$ $df=28$ $p=0.000$

Table 12. 현재 입상에 있는 동기생들의 비율

N(%)

	5년 이하	10년 이하	15년 이하	15년 이상	계
100%	34(20.36)				34(12.06)
80~90%	60(35.93)	6(7.14)			66(23.40)
70~80%	34(20.36)	7(8.64)	1(3.70)		42(14.89)
60~70%	17(20.36)	13(16.05)	2(7.41)		32(11.35)
50~60%	15(8.98)	20(24.69)	2(7.41)		37(13.12)
40~50%	3(1.80)	10(12.35)	1(3.70)	1(14.29)	15(3.52)
30~40%	1(0.60)	11(13.58)	7(25.93)	2(28.57)	21(7.45)
20~30%	2(1.20)	11(13.58)	7(25.93)	1(14.29)	21(7.45)
20% 이하	1(0.60)	3(3.70)	7(25.93)	3(42.86)	14(4.96)
계	167(100.00)	81(100.00)	27(100.00)	7(100.00)	282(100.00)

$\chi^2=195.456$ df=24 p=0.000

며, 20년 이상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8.31%인 67명이었다. 임상기간이 짧은 이유는 응답자 352명 중33.24%인 117명이 Pay지급 관련 문제와 육체적인 부담감으로 짧았다.

Table 9. 물리치료사의 임상 기간

N(%)

	남	여	전체
5년 이하	7(3.41)	12(7.45)	19(5.19)
5~10년	75(36.59)	89(55.28)	164(44.81)
10~15년	51(24.88)	21(13.04)	72(19.67)
15~20년	27(13.17)	17(10.56)	44(12.02)
20년 이상	45(21.95)	22(13.66)	67(18.31)
계	205(100.00)	161(100.00)	366(100.00)

$\chi^2=20.181$ df=4 p=0.000

Table 10. 임상 기간이 짧은 이유

N(%)

	남	여	전체
Pay가 약하다	61(31.77)	56(35.00)	117(33.24)
육체적 부담감	57(29.69)	60(37.50)	117(33.24)
장래성이 없다	59(30.73)	35(21.87)	94(26.70)
의사들과의 관계	15(7.81)	9(5.62)	24(6.82)
계	192(100.00)	160(100.00)	352(100.00)

$\chi^2=5.051$ df=3 p=0.168

실제로 동기생들이 입상에 있는 비율을 묻은 질문에 임상 경력이 5년 이하는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35.93%가 80~90%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10년이하는 24.69%로 50~60%, 15년 이상은 42.86%가 20%미만으로 응답했

다. 공무원이나 기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게 될 기회가 있었을 때 전직 여부를 묻는 질문에 365명이 응답하여, 78.90%인 288명이 관심을 보였으며, 이 중 32.60%는 전직하겠다고 응답했고, 21.10%는 물리치료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응답했다.

Table 11. 전직 여부

N(%)

	남	여	전체
전직하겠다	63(36.42)	56(29.17)	119(32.60)
고려해 보겠다	79(45.66)	90(46.88)	169(46.30)
관심없다	31(17.92)	46(23.96)	77(21.10)
계	173(100.00)	192(100.00)	365(100.00)

$\chi^2=3.069$ df=2 p=0.216

G. 물리치료사들의 업무 능력 파악과 치료 형태

학회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363명이 응답하여 이 중 44.63%인 162명이 OMPT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NDT 학회로 25.62%였다. 환자 치료 시 전문 지식 사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73.01%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13.64%였다. 이들이 충분히 전문 지식을 사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남녀 모두 환자수가 많다는 것이었는데 55.56%였다. 그러나 지식이 부족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19.61%나 되었다. 전문 지식을 사용하기 위한 환자수는 10명이하가 적당하다고 전체의 63.39%였는데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 평가지를 작성하는 경우는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60.63%나 되었으며, 기록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

다가 55.51%로 가장 많았으며, 12.13%는 기록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환자를 치료하는데 따른 치료시간은 40분 이상 치료하는 경우가 36.34%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를 평가하는 시간은 57.79%가 5분 이하로 평가한다고 대답했다. 반면에 평가하지 않는 경우는 10.76%였다.

Table 13. 관심있는 학회 N(%)

	남	여	전체
OMPT	90(47.12)	72(41.86)	162(44.63)
NDT	47(24.61)	46(26.74)	93(25.62)
MFR	23(12.04)	33(19.19)	56(15.43)
전신조정술	24(12.57)	14(8.14)	38(10.47)
기타	7(3.66)	7(4.07)	14(3.86)
계	191(100.00)	172(100.00)	363(100.00)

$\chi^2=5.448$ df=4 p=0.244

Table 14. 전문지식 사용여부 N(%)

	남	여	전체
사용 안한다	16(10.06)	32(16.58)	48(13.64)
부분적 사용	120(75.47)	137(70.98)	257(73.01)
충분히 사용	23(14.47)	24(12.44)	47(13.35)
계	159(100.00)	193(100.00)	352(100.00)

$\chi^2=3.225$ df=2 p=0.199

Table 15. 전문지식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N(%)

	남	여	전체
환자의 수가 많음	76(56.72)	94(54.65)	170(55.56)
지식의 부족	24(17.91)	36(20.93)	60(19.61)
주변환경 열악	29(21.64)	36(20.93)	65(21.24)
원장의 간섭	5(3.73)	6(3.49)	11(3.59)
계	134(100.00)	172(100.00)	306(100.00)

$\chi^2=0.438$ df=3 p=0.932

Table 16. 전문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환자수 N(%)

	남	여	전체
10명 이하	93(56.71)	120(69.77)	213(63.39)
10~20명	61(37.20)	47(27.33)	108(32.14)
20명 이상	10(6.10)	5(2.91)	15(4.46)
계	164(100.00)	172(100.00)	336(100.00)

$\chi^2=6.717$ df=2 p=0.035

Table 17. 평가기록지 작성 여부 N(%)

	남	여	전체
매일 기록한다	40(24.84)	28(14.97)	68(19.54)
가끔 기록한다	30(18.63)	39(20.86)	69(19.83)
기록하지 않는다	91(56.52)	120(64.17)	211(60.63)
계	161(100.00)	187(100.00)	348(100.00)

$\chi^2=5.365$ df=2 p=0.068

Table 18. 평가기록지를 기록하지 못하는 이유 N(%)

	남	여	전체
기록지가 없다	15(13.04)	16(10.19)	31(11.40)
시간이 없다	71(61.74)	80(50.96)	151(55.51)
방법을 모른다	10(8.70)	23(14.65)	33(12.13)
기타	19(16.52)	38(24.20)	57(20.96)
계	115(100.00)	157(100.00)	272(100.00)

$\chi^2=5.673$ df=3 p=0.129

Table 19. 환자를 치료하는데 소요 시간 N(%)

	남	여	전체
20분	27(16.27)	11(5.82)	38(10.70)
30분	21(12.65)	35(18.52)	56(15.77)
40분	61(36.75)	68(35.98)	129(36.34)
50분 이상	56(33.73)	75(39.68)	131(36.90)
기타	1(0.60)		1(0.28)
계	166(100.00)	189(100.00)	355(100.00)

$\chi^2=12.937$ df=4 p=0.012

Table 20. 환자를 평가하는데 소요 시간 N(%)

	남	여	전체
5분 이하	97(58.08)	107(57.53)	204(57.79)
10분	31(18.56)	30(16.13)	61(17.28)
15분	10(5.99)	14(7.53)	24(6.80)
20분 이상	17(10.18)	9(4.84)	26(7.37)
평가하지 않음	12(7.19)	26(13.98)	38(10.76)
계	167(100.00)	186(100.00)	353(100.00)

$\chi^2=7.793$ df=4 p=0.099

H. 개업에 대한 인식과 물리치료계를 바라보는 시각

응답자 353명 중 57.51%인 203명이 10년 이내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9.63%였다. 19.26%는 단기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개업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의사협회의 방해와 학제 관련으로 50%였다. 물리치료계의 최고 문제점은 중앙회의 파행운영과 물리치료사의 과잉배출 순이 있는데 86.92%였다.

Table 21. 개업권 확보 가능 기간 N(%)

	남	여	전체
5년 이내	36(21.43)	32(17.30)	68(19.26)
10년 이내	90(53.57)	113(61.08)	203(57.51)
15년 이내	7(4.17)	2(1.08)	9(2.55)
15년 이상	10(5.95)	19(10.27)	29(8.22)
불가능하다	20(11.90)	14(7.57)	34(9.63)
기타	5(2.98)	5(2.70)	10(2.83)
계	168(100.00)	185(100.00)	353(100.00)

$$\chi^2=8.672df=5 \quad p=0.123$$

Table 22. 개업권 확보가 불가능한 이유 N(%)

	남	여	전체
PT실력의 부족	26(14.53)	22(13.17)	48(13.87)
학제관련 문제	35(19.55)	39(23.35)	74(21.39)
의사협회의 방해	48(26.82)	51(30.54)	99(28.61)
관계법령의 문제	27(15.08)	19(11.38)	46(13.29)
협회의 무능	38(21.23)	29(17.37)	67(19.36)
기타	5(2.79)	7(4.19)	12(3.47)
계	179(100.00)	167(100.00)	346(100.00)

$$\chi^2=3.162df=5 \quad p=0.675$$

Table 23. 물리치료계의 전반적인 문제점 N(%)

	남	여	전체
중앙회의 파행운영	68(37.99)	67(42.14)	135(39.94)
유사학회의 난립	28(15.64)	23(14.47)	51(15.09)
물리치료사 과잉 배출	69(38.55)	56(35.22)	125(36.98)
기타	14(7.82)	13(8.18)	27(7.99)
계	179(100.00)	159(100.00)	338(100.00)

$$\chi^2=0.706df=3 \quad p=0.872$$

IV. 고 찰

전국에 물리치료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수는 29군데로 1998년 2월에 국가고시를 응시한 수는 1414명으로 이중 75.74%의 합격률로 1071명이 신규 면허를 취득했고, 지금까지 배출된 물리치료사수는 13,301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여러면에서 물리치료사들의 근로환경과 복지, 사회적인 인식,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의해 조사된 바로는 368명의 조사대상자 중 응답자 350명의 연령과 성별을 보면 성별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에서 남자는 71.85%, 여자는 94.62%, 전체적으로는 84.01%가 32세 이하였다. 이 결과는 여러면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졸업연도 역시 10년 이상 된 물리치료사는 응답자 364명 중 69명으로 18.95%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물리치료사들의 임상 경력을 보면 응답자 320명 중 5년 미만 50.32%, 5년 이상 10년 미만 33.13%, 10년 이상 16.56%였는데 이는 김인숙(1990)의 보고에서 5년 미만 61.6%, 10년 미만 27.4%, 10년 이상 11% 보다는 다소 형편이 나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와 김인숙의 연구를 보면 경력이 많을수록 임상에 있는 물리치료사들은 줄어드는 현상이 보여지는데, 물리치료실을 찾아오는 환자들은 임상 경력이 5년 이하인 숙련되지 않은 물리치료사들에 의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치료사 스스로도 동료들의 임상 기간을 묻는 질문에 366명이 응답하여 남녀 모두 5~10년 사이가 36.59%, 55.28%로 가장 많았고, 전체적으로도 44.81% 5~10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5년 이하를 살펴보면 남자는 64.88%가 여자는 75.77%, 전체 69.67%였으며,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남자 21.95%, 여자 13.66%, 전체 18.31%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대다수의 물리치료사 임상 가능 기간은 남자 15년, 여자는 10년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물리치료사들의 임상 기간이 이처럼 짧은 이유는 Pay 관련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 장래성등으로 압축시킬 수 있으며,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은 한마디로 보수는 형편 없고, 일은 힘들며 더욱이 장래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과연 물리치료사가 전문직에 속하는지 묻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특히 IMF의 영향으로 실직 사태가 가속되고 있고, 많은 병의원들이 휴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으로 의무화 되어있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13.97%가 가입되지 않았으며, 의료보험

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도 미미하지만 7.12%나 되었다. 연월차 휴가가 제공되지 않는 사람은 무려 51.78%나 되었으며, 지하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28.31%나 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낮은 상태의 수치이지만 보편적으로 40%정도는 물리치료실이 지하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것들은 물리치료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취업 형태를 보면 권혁철은(1996) 5736명의 취업자 중 종합병원에 24%, 병원급에 18.6%, 개인의원 및 재활기관에 58%가 근무한다고 보고했는데, 본 연구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323명 중 종합병원에 31.89%, 병원급에 17.03%, 개인의원과 기타 재활기관 및 보건소에 51.08%가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종합병원과 개인의원 및 재활기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거의 비슷했다.

김인숙(1990)의 보고에 의하면 물리치료사 1명이 치료하는 환자는 30명 미만인 39.5%, 이상이 31.1%라고 했는데, 본 연구자의 조사에 의하면 30명 이하가 48.45%, 이상이 41.55%였는데, 이것을 병원 형태별로 보면 종합병원에는 30명이하가 61.61%, 병원급에는 28.38%, 개인의원은 31.15%, 기태 재활원이나 복지관 100%였다. 위에서 논한 30명이하로 진료하는 병의원이 48.45%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합병원이나 재활원, 복지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이고, 응답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원급의 71.62%와 개인의원의 78.85%는 하루에 30명 이상을 진료하고 있었다. 물리치료사 1인당 40명 이상을 진료하는 경우도 병원급 35.13% 개인의원 29.51%였다. 따라서 종합병원의 물리치료사들은 적정수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병원급이하에서는 적정수의 의미가 무색했다. 일부에서 현 물리치료사의 공급이 과잉인가 아닌가에 논란이 일고 있으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 일일 30명 이하의 환자를 치료하게 된다면, 물리치료사의 수요가 증가될 것이므로 공급과잉이라고 할 수 없겠으나, 현재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임상 물리치료사들의 임상 기간을 단축시키고, 이직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물리치료사들의 현 병원 근무 연수에서 응답자 361명 중 57.34%가 1~5년 사이였고,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응답자는 6.37%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여자는 2.16%였으며 이를 통해 물리치료사들이 한 병원에서 장기 근무하는 경우가 어렵다는 것이 조사되었다. 실제로 응답자 319명 중에서 79%는 직장을 한 번 이상 옮겼으며, 3회 이상 옮긴 경우는 17.24%였다. 5회 이상 옮긴 경우도 7.

52%로 나타났으며, 한 번도 옮기지 않은 경우는 21%였다. 이처럼 직장을 자주 옮기는데도 불구하고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에서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는 35.5%였고, 22.54%는 불만이라고 대답했다. 물리치료사들이 직장을 자주 옮기는 이유는 남자 39.17% 여자 25.93% 전체 32.16%로 남녀모두 Pay 관련 문제들로 직장을 옮겼다. 이처럼 인건비는 많은 물리치료사들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었다. 실제로 물리치료사들의 연봉을 조사한 항목을 보면, 응답자 353명 중 남자는 2000만원 이상이 22.67%로 가장 많았으나, 1200만원 이하는 15.7%였다. 여자는 35.36%가 1200~1400사이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2000만원 이상은 3.87%였으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2.60%였다. 전체적으로는 1200~1400사이가 26.35%로 가장 많았고, 1200이하는 24.36%였다. 물리치료사들의 인건비는 경력하고 반비례했으며, 남녀의 임금격차도 두드러졌다.

노동부에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조사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1997)의 내용 중 고용. 근로시간 및 임금동향을 살펴보면 1997년 9월 말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전산업 고용수준은 5,148천명으로,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6.4시간이고(월 24.4일), 임금 총액은 월 1,458천 원이었다. 임금은 96년 9월 대비 124천원이 증가하여 임금 상승률은 9.2%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물리치료사들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분석해보면 물리치료사들의 근무 여건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리치료사들의 근로 일수 및 시간, 임금 등은 병원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임금의 경우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약 70% 이상이 다른 직군에 있는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일수 및 시간의 경우는 본 연구의 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임상에서 보면 병원급 이상에서는 그런대로 평균에 인접하고 있으나, 개인의원은 주 50시간, 월 25일 이상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대다수의 물리치료사들은 다른 직군 종사자들의 평균에도 못미치는 낮은 임금과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물리치료사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이 주어졌을 때 78.90%가 전직을 고려하겠다고 대답했으며, 이러한 통계는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의 어떠한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며, 비약하면 물리치료사는 더 이상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물리치료사들의 업무를 분석해 보면, 평가지를 전혀

기록하지 않는 사람이 60.63%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환자수가 많아 기록할 시간이 없다(55.51%)고 대답했으며, 전문지식을 부분적으로나마 사용하는 경우가 86.65%였고, 한명의 환자를 치료하는 시간이 30분이상인 경우가 89.01%로 조사되었다. 얼핏보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가 많아서 평가지를 기록하지 않는 물리치료사가 한 명의 환자를 30분이상 치료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며, 게다가 기록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12.13%와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19.61%에 대한 재교육은 그 수가 미미하다고는 하지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물리치료사들의 개업에 관한 인식과 물리치료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보면, 물리치료사들은 개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남녀모두 각각 75%와 78.38% 전체 76.77%가 10년내로 생각하고 있었다. 5년 이내 가능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19.26%인데 반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9.63%로 나타났다. 하지만 87.54%의 물리치료사들은 개업이 언젠가는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개업에 관한 관심과 욕구가 지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일 개업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의사협회의 방해(28.61%), 학제관련 문제(21.39%), 협회의 무능(19.36%)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속한 개업권 확보를 위해서는 위의 문제와 관계있는 관계자들의 상호 협조와 보완 작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물리치료사들이 느끼는 물리치료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는 중앙회의 파행 운영(39.94%)과 물리치료사의 과잉 배출(36.98%), 유사학회의 난립(15.09%)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지만 기타 문제들이 따라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물리치료사의 과잉 배출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중복 응답을 할 정도로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물리치료사를 양성하는 대학들의 증가 추세와 정원 확충이 가속될 경우 최근 4년 동안 4,190명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된바 향후 2010년에 가면 현재에서 138%가 늘어나 그 수는 32,000명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학교 수를 늘리고, 정원을 증가시키기 전에 물리치료사들의 취업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졸업 후 진로를 다양화시키는 한편, 개업을 빠른 시간내에 가시화시켜야 하며, 제도적으로 물리치료사들의 일일 환자

수를 본 연구에서 조사된바와같이 전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15명 내로 줄이거나 현행 의료보험 환자 25~30명을 보험 종별에 관계없이 30명 이하로 범제화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 자료는「물리치료사들의 근무 현황 조사」를 위해 전국에 걸쳐 1998년 4월1일~30일까지 각종 학회나 세미나, 보수교육을 개최하고 있는 지역(서울, 인천, 강릉, 대전, 당진, 대구, 경북, 울산, 부산, 경남지역)의 물리치료사들에게 설문지 1000장을 돌려 368장을 회수한 것으로 남자는 164명, 여자는 190명이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의 특성은 응답자 350명 중 남자 164명, 여자 190명으로 남자는 27~29세가 32.32%, 여자는 24~26세가 46.77%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의 남자는 7.32%, 여자는 없었다. 응답자 320명의 임상 경력은 5년 미만 42.19%, 10년 미만 83.45%, 10년 이상 16.56%였고, 5년 미만에서는 여자가 남자 보다 많았으나, 10년 이상의 장기 근무에서는 남자가 우세했다.
2. 물리치료사들의 근무 형태를 보면 응답자 323명 중 37.46%가 개인의원 17.02%가 병원급 종합병원 31.89% 기타 재활원과 복지관 9.60%로 분포하고 있었다.
3. 복지 수준 및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했으며, 실직시 법으로 의무화 되어있는 고용 보험가입 여부에 13.97%가 가입되지 않았으며,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7.12%, 연월차 휴가가 제공되지 않는 사람은 무려 51.78%나 되었으며, 지하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28.31%나 되었다.
4. 인건비와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는 다른 직종의 근로자 주간 근로시간인 주 46.4시간(월 24.4일)에 물리치료사들은 차이가 있었고, 임금은 월 1,458천원인데, 응답자 중 약 70% 이상이 다른 직군에 있는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일수 및 시간의 경우 역시 본 연구의 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평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대다수의 물리치료사들은 다른 직군 종사자들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과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물리치료사들의 이직 가능성(78.90%)을 높이는 한편, 한 직장에서의 장기 근무를 막고 있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인건비는 경력과 반비례

남녀의 임금 격차도 두드러졌다.

5. 현 직장의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가 44.50%였으나 근로 환경이나 복지 수준이 비교적 갖추어진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22.54%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 결과로 분석했을 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0% 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비례하지 않았다.

6. 병원 형태에 따른 일일 치료 환자수는 30명 이하로 진료하는 경우가 종합병원 61.66% 병원급 28.38% 개인 의원 31.15% 재활원 및 복지관 100% 였으나, 응답자들이 대부분 근무하는 병원급(71.62%)과 개인의원(78.85%)의 경우 일일 30명 이상을 치료하고 있었다.

7. 물리치료사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임상기간은 366명이 응답하여 응답자의 44.81%가 10년 이하로 보았으며, 20년 이상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8.31% 였다. 임상기간이 짧은 이유는 응답자 352명 중 33.24%가 Pay지급 관련 문제와 육체적인 부담감을 들었다.

8. 물리치료사들의 업무를 분석에서 평가지를 전혀 기록하지 않는 사람이 60.63%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환자수가 많아 기록할 시간이 없다(55.51%)가 가장 많았고, 전문 지식을 부분적으로나마 사용하는 경우가 86.65%였고, 한명의 환자를 치료하는 시간이 30분이상인 경우가 89.01%로 조사되었다. 얼핏보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기록방법을 몰라서 평가지 기록을 못하는 12.13%와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19.61%에 대한 재교육은 그 수가 미미하다고는 하지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9. 개업에 대한 인식과 물리치료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물리치료사들은 개업권을 확보 할 수있는 기간을 용

답자 353명 중 남녀 모두 각각 75%와 78.38% 전체 76.77%가 10년 내로 생각하고 있었다. 5년이내 가능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19.26%인데 반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9.63%로 나타났다. 하지만 87.54%의 물리치료사들은 개업에 관한 관심과 욕구가 지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들이 느끼는 물리치료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는 중앙회의 파행 운영(39.94%)과 물리치료사의 과잉 배출 (36.98%), 유사학회의 난립(15.09%)순으로 조사되었다.

참 고 문 헌

- 권혁철 : 우리나라 의료 재활 전문인력 수요, 공급 및 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대학원, 1996
- 김인숙 : 물리치료 외무 기록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 Vol. 11, No. 1, 1990
- 김찬문 : 지역사회재활 중심에서 물리치료사의 참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 Vol. 4, No. 2, 1997
- 김철용 : 물리치료의 발전 과제와 전망 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 Vol. 4, No. 2, 1997
- 노동부 : 매월노동통계조사 중 고용 근로시간 및 임금 동향, 1997
- 대한간호사협회 : 간호사 등록 및 취업 현황, 1996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 물협신보 115호, 1998
- 대한방사선사협회 : 방사선사 등록 및 취업 현황, 1997
- 장정훈, 신흥철 : 물리치료사 인력 수급 전망, 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 Vol. 10, No. 2, 1989
- 정낙수 : 1991년부터 2010년까지의 물리치료사 인력수급에 대하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 Vol. 12, No. 2, 1991